

# 사료산업의 역경지수(AQ) 높이기



강창원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본회 R&D위원

우리나라 축산 및 사료업계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갖가지 역경과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축산물 생산과잉으로 농장수익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 생산자 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사육수수 감축운동을 통해서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금년 초에는 각종 질병의 확산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불어 사료업계 또한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수도 없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돈장에서는 돈가 하락이 다소 주춤하는가 싶더니 유행성 설사병(PED)의 확산으로 농장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리과 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로 수많은 오리과 닭들이 강제 매몰 처리되고 소비 또한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은 대형 악재들로 인하여 사육수수가 급감함에 따라 축산물 가격은 회복이 되고 있으나 농장의 가축이 줄어들어 사료

업계는 사료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만 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타격으로 사료가격 구조나 자금회수의 어려움 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도 이와 같은 축산물의 수급이나 질병확산으로 인한 역경은 한시적이고 대응책 마련의 길이 보이기에 불안 요인도 시간과 함께 해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큰 폭풍 즉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은 참으로 축산 및 사료산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칠레, EU,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중국 등 세계적인 축산 강국들과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이 너무 커 보인다.

최근 소규모 비육 농가의 수가 급감하는 데서 변화에 대한 한우 농가들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과 정보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온갖 역경과 위기 앞에 사람들

은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쉽다. 그 결과 개인이나 구성원의 성패는 결국 경제적 빈부 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속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일컬어 스톨츠(Paul Stoltz)박사는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역경지수는 갖가지 역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견디어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예고 없이 찾아드는 각종 변화와 난관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이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인내와 지혜가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일 게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지수(IQ), 감성지수(EQ), 공존지수(NQ) 보다도 역경지수(AQ)가 더 중요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경지수를 높이는 데는 만족지연능력(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박사의 마시멜론 실험 결과)이 중요하고 만족지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미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즉 뚜렷한 미래 목표가 있을 때 순간의 욕망이나 감정억제로 올바른 판단과 인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성공방정식이 조직이나 기업 경영에도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역경과 위기로 이어지는 축산 및 사료업계의 성패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 사료산업에 있어서 역경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축산과 사료산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설정이 있어야 하겠다. 축산이나 사료를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단기목표는 물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사료의 제조판매업 보다는 국민 영양에 기여하는 영양 산업으로서 투자와 경영목표가 있을 때 역경과 위기에 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나 역경이 오히려 기회와 교훈으로 전환되어 역경지수 높이에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한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써야 할 일이다. 시대흐름에 맞거나 한발 앞서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낭비제거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기업들, 소니나 이스트먼 코닥 등의 실패사례를 보면 시대흐름에 따른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즉 자만과 현실안주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과 관리에 대한 소홀에서 오는 기초체력의 노화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그것이 기업의 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실패나 난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가오는 위기와 역경에 대비하는 유연한 학습조직을 가질 때 역경지수 올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변화와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과 사전적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경직성 즉 관료적 사고를 지닌 조직은 참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옆자리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걸려온 전화를 귀찮아 하면서 받지 않고, 부서원 중 한사람이 사고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업무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변화와 위기에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휴가문화가 잘 정

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당사자가 빠지면 전체 업무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경직성의 한 단면으로서 업무위임(replacement plan)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통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조직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예고 없이 밀려오는 갖가지 역경과 위기 앞에서 사료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역경지수 높여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참으로 높은 역경지수를 지닌 기업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성공의 개가를 불러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가야 하겠다. ☒